

그리스도인과 정치: 신앙의 자유 지키기

성경말씀: 갈5:1

지난 두 주,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갈5:1), 자유(리버티), 인간은 속박된 채 태어난다.

리버티는 마귀에게, 죄에, 세상에, 육신에, 율법에, 죽음에,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가 생긴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그리스도의 자유는 종교 개혁 이후 미국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명시됨
우리나라도 미국 사람들과 기독교 자유정신에 의해 해방, 건국, 산업화, 번영

그런데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라의 대 혼동, 나라가 세워진 날도 몰라 서로 싸운다. 가치관 혼동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지키지 않으면 빠져나간다(갈5:1). 다시 속박에 매이지 말라.

이스라엘 이집트 탈출 자유,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뒤 또 다시 이집트와 이방 민족들 습관대로
다윗과 솔로몬 이후 자유를 등한시하다가 결국 아시리아, 바빌론 포로 생활

유대인들, 예수님의 자유 선포 무시하다가 결국 AD70년에 나라 잃고 쫓겨남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500년 지난 지금 다시 천주교의 그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갈5:1,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가르쳐야 한다.

현 시대 인간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여가 생활 등

그런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정치,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빠진다.

8월 17일 통계: 2018년 7월 취업자 증가 5000명, 지난해 같은 달 316,000명, 63분의 1

실업자 8만명 증가, 총 100만 명 이상, 30-40대 실업률 최고

4대강 녹조, 세종보를 여니 녹조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오히려 2-4배 증가

탈 원전 한다고 하여 수많은 일자리, 수 조원 손해, 태양광한다고 전 국토 오염

북한 비핵화를 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핵보유국 인정하는 꼴

그러더니 북한산 석탄 수입, 개성 공단 해서 또 돈 퍼주기

드루킹 수백만 건의 댓글 조작, 탄핵, 대선, 지방 선 등 영향

동성애법, 난민법, 차별금지법의 모든 조항을 담은 국가인권기본정책(NAP) 통과

말 그대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폐 법이 횡행, 사사 시대처럼 되고 많, 국가 비전이 없다.

예방책: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였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민족과 국가를 배운다.

신약시대 교회를 통해 우리는 개개인 영혼의 자유와 교회를 배운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서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잘 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반면에 말을 하면 잡아가는 나라는 안 된다: 북한, 중국

<그리스도인과 정치: 신앙의 자유 지키기>

웨인 그루렘 소개

미국은 위대한 나라, 모든 영역에서 수많은 책을 짓는다. 사상이 풍부한 나라

2017년 12월 21일, 웨인 그루렘 <성경에 따른 정치> 소개,

웨인 그루렘, 현시대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신학자 중 한 사람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약학 박사, 그루렘의 조직 신학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 중 하나

625쪽,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르쳐 준다. 18장으로 구성됨,

나중에 강해하려고 한다.

오늘은 그루렘의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왜 정치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설명

총 A4 20쪽, 이정원 자매님 번역, 곧 사이트에 올릴 것이다.

정치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견해

1. 정부가 종교를 강요해야 한다. 국교, 신정정치

AD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1517년 종교개혁과 그 이후까지 무려 1,5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 관점 지지, 국교, 신정 국가, 이슬람, 남미, 무교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 a. 진정한 믿음은 강요할 수 없다.
- b.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마22:20-21).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역과 카이사르의 영역을 구분하심
세금 등은 정부의 영역,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

- c. 성경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최고의 가르친다(갈5:1).

2. 정부는 종교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미국의 인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 공립학교에서 기도 금지, 성경 읽기 금지, 십계명 부착 금지
결국 어디서든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것 금지

미국의 독립 아버지들은 이런 것을 꿈꾸지 않았다. 기독교에 근거해서 기독교 사상이 지배하는 국가 성경은 분명하게 정부 관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롬13:4)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료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그들에게 말할 수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정부 관료들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는 자'(벧전 2:14)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 권고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누가 해야 하는가?

3. 모든 정부는 사악하며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렇지 않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원래 시민 정부는 사탄이 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기관, 시민 정부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사탄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추긴다! 시민 정부는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벧전 2:14) 하나님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사탄은 선을 행하는 자들을 낙담시키고 공격한다.

사탄은 모든 정부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고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정부가 100% 다 사악하며 사탄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4.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관점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한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 a.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선한 행위를 하라고(엡2:10; 갈6:10).

이에 따라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과 정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정치 과정에 좋은 영향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마5:16), 선한 행위를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목사가 자녀 양육 방법, 좋은 결혼 생활, 이웃 사랑을 가르치면 선한 행위

교회가 가정, 병원, 학교, 사업체 및 지역 사회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면 왜 정부는 배제해야 할까? 그 영역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영역

- b.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 동성애 반대, 무조건 난민 수용 반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좋은 정부와 좋은 법을 가져 오기 위해 정부를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면에서
내 이웃의 선을 추구해야한다,

- c.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요일5:3).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 d.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이다. 그루템의 말 "우리의 정부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삶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저는 남북한의 차이를 생각해 봅니다. 이 두 국가는 동일한 언어, 민족 배경, 문화 역사를 가지며, 세계에서 동일한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남한은 자유롭고 민주주의가 강하고 번영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부를 가진 공산 국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북한에는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있고 그들은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혹하고 지속적인 박해로 인해 교회가 너무 제한되어 선교 활동도 없고 공개된 예배도 없고 기독교 서적도 전혀 출판되지 않습니다. 수백만의 북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대조적으로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남한의 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키우고 번성하며 파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약 20%).” “이 두 나라의 유일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정부의 종류입니다. 한 국가는 자유로운 국가이고 한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자유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 사이에 세상의 많은 다른 나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즉 세상에는 좀 더 자유로운 정부가 있고 덜 자유로운 정부가 있으며 성경이 가르치는 정부를 위한 하나님의 원칙에 더 부합되는 정부가 있고 덜 부합되는 정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되는 정부에서는 교회가 번성하고 사람들의 삶은 수백 가지 면에서 더 낫습니다.” “또 정부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딤후2:2). 좋은 정부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나쁜 정부는 그 목표를 저해합니다. 정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좋은 정부 갖도록 기도하고 교육하고 일해서 알려야 합니다.”

- e. 교회와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말해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에 대한 세계관도 포함된다.

조직 신학자 그룹의 견해: 교회는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상당히 크게 미쳐야 한다.

1. 구약 성경이 이를 지지한다.

- a. 이집트 생활 당시, 파라오의 명령 ‘아들을 죽여라’, 산파들의 거부, 하나님의 축복
- b. 모세는 파라오에게 해방 요청
- c.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숭배 명령, 거부, 하나님 증언
- d.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복구;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었기에 가능함
- e. 에스터도 아하수에로에게 영향을 미쳐 나라와 국민 구출

2. 신약 성경

- a. 침례자 요한: 헤롯의 불법을 꾸짖다가 죽었으나 처음에는 그의 말을 달게 듣고 의롭게 여김
- b.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증언,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네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행24:24-25).**

왜 그는 떨었을까? “바울이 옳고 그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해, 그리고 로마 제국의 관료로서 하나님어 주신 기준에 따라 생활해야 할 의무를 가진 벨릭스의 태도에 대해 말하였으므로”

- c. 정직한 성도들이 정부에 영향을 미친 예들은 성경의 모호한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에스터기(마지막 역사서)까지의 구약 전체에서 발견되며, 정통 대언서인 이사야서부터 스바냐까지, 그리고 신약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다 나타난다. 이 외에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과 악한 왕들에게 권고와 격려와 책망을 한 구약 대언자들의 많은 이야기를 더한다면 모든 왕들의 역사와 모든 대언자들의 기록을 포함하여 구약의 모든 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부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선악과 악한 통치자에 대해 말하는 시편과 잠언의 여러 말씀을 추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지혜에 근거하여 정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주제이다.

d. 투표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정부에 더 큰 영향을 미쳐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 더 큰 영향을 미쳐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정부의 지배력의 상당 부분이 투표를 통해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표하기에 충분히 나이를 먹은 모든 시민들은 하나님께서 시민 정부에 기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부가 따라야 할 도덕적, 법적 기준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시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정부를 찾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교회가 성경을 통해 정부와 정치에 관해 바르게 세계관을 가르칠 때 알 수 있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미국, 대한민국의 헌법의 99% 원리는 성경이다.

그래서 목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성과 이성을 동원해서 바르게 투표하여 바른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가장 중요한 성화의 행위라고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을 성경의 원리에 따라 양육해야 합니다.” 하고 말한 뒤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쳐서 좋은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뒤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목사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국가와 정치, 역사를 판단하며 바르게 투표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 사이트 정관연 형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가?”

갈5:1, 해방의 자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그래서 진리와 자유를 지키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부, 지도자, 통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리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 하나님 앞에서 책망

결론은 무엇인가?

1. 그루뎀의 말: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 없다면 정부는 명확한 도덕적 나침반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오직 성경만이 바른 진리를 제시한다. 그것을 널리 전해야 한다. 그래서 동성에 반대
2. 그루뎀의 말: 저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 시민은 견문을 넓히고, 성경적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자와 정책을 투표하려는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갖게 될 정부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맡기신 청지기 직분입니다. 이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감사해야 할 직분입니다. 정상적인 미국 성도들이 하는 일
3.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를 구성하면 안 된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 개인의 수월성을 인정하고 독려하는 정부, 평등화 반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면 공산주의
4. 법치를 시행하는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폐 법, 쏫불 등 No! 인민 민주주의, 중우 정치, 나라를 망치는 길
5.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이 길로 나가면 반드시 망한다. 좌파 정부는 성공한 사례가 단 하나도 없다.
6. 교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정부에 대해 가르치고 외쳐야 한다(호4:6).
7. 언론의 좌경화, 펜앤드마이크, 미래한국, 그리고 미디어펜 추천, 교양인 지성인 정상인
8. 그 결과 복환을 힘으로 눌러 자유 통일하고 해방을 가져되어야 한다.
9. 그리고 이 자유를 대대손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10.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자.